

투데이 칼럼

친절한 스피치 삶

사람을 만나 관계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할까?' '얼마나 인상이 호감인가?'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관계의 중요한 요소인 소통 교육도 친절교육과 인성교육, 스피치 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절(親切)에 왜 끊을 절(切)이 있는지 알아보면 일본의 어느 전장에서 패한 장수들은 할복자살을 해야 했는데 그때 심복이나 친구가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칼로 목을 베어주었다는 데서 친절이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영어의 친절하다는 단어인 'kind'에 동정심 있는 이란 뜻도 있었고 친한, 친숙한 의미의 'friendly'에도 '남을 돕는'이란 뜻이 있다.

친밀 'intimacy'란 어원은 'intimus'로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을 뜻한다.

즉, 친밀감은 '사람의 정신적 공간 중에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서로의 내면까지 솔직하게 표현하면 친밀감이 깊어진다는 것이다.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스�피치 용어 중에도 'cushion speech'가 있는데 상대에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말을 뜻한다.

프랑스의 '파스칼'은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라고 말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3개월간의 겨울을 따스하게 해 준다.'는 속담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여기서 류시화 작가의 책에 있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길가에 좌판을 벌여놓고 울고 있는 노점상을 내려다보던 유명 한 탈렌트 김혜자씨가 옆에 앉아서 같이 울기 시작하고 팔찌 하나를 사고는 300 달러를 주었다."

왜 큰 돈을 주었냐고 묻자 그

녀는 '누구나 황제를 하고 싶어 한다. 그 노점상이 내 돈으로 황제를 해서 친구들과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김혜자씨의 인자한 얼굴은 그런 그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친절하 스피치를 강의 하고 있지만 친절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다.

저는 다리가 불편해서 삼갑게 일어나 맞이하지 못하니 처음 보는 분들은 오해를 한 것 같아 항상 아쉽지만, 미안한 생각도 든다.

누구든지 교통사고나 길가 등에서 넘어지면 달려가 도와주고 친절하 말 한마디 위로의 스피치를 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요사이 젊은이들은 사

고를 보고도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다.

친절도 용기와 긍정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친절한 생활을 하려면 좋은 인성과 스피치를 터득해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입말과 몸말, 글말로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어느 직장이나 단체, 봉사인의 모임 등에서도 일원이나 구성원들이 친절하고 비전 있는 용기의 말로 생활하면 더 만나고 싶고, 가고 싶은 곳으로 변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우리의 서비스 수준이나 남을 대하는 태도를 되돌아보고 서로가 베푸는 친절로 세상이 더 따뜻하고 살맛나는 곳으로 변화시키는데 내가 먼저 앞장서자.

내가 친절한 생활을 할 때 이 친절은 부메랑이 되어 더 큰 친절로 되돌아오고 생활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단 한번 왔다가 가면서 더 배울 걸, 더 배울 걸, 더 사랑할 걸 하면서 가지 말고 후회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 친절하고 베푸는 나눔의 삶으로 보람 있는 삶, 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보자.

사설

디자인 혁신 시대의 전문 인재

국내 어느 대학이 2024년부터 '시각영상디자인과'를 새롭게 신설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대학은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디자이너를 양성하겠다는 각오다.

시각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 영상미디어를 융합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실무 교육을 준비 중이다.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추상적인 정보나 아이디어, 메시지 등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비주얼 콘텐츠 생산력이 주목받는 시대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적인 표현 능력이 중요하다.

개인의 개성과 소양을 발굴하고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연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자인센터, 스튜디오, CG실, 모션그래픽실, 영상편집실 등 첨단 시설 및 최신 기자재가 필수다.

산업체와의 캡스톤디자인 및 디자인프로젝트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웹

러리스트 산업기사, 사진기능사 등 자격증 취득 특강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이 학과는 창의력을 자원으로 삼는 학과이다. 졸업 후 편집디자인, 패키지디자인, 웹디자인, 캐릭터디자인, 게임디자인 등 디자인 업계로 진출할 수 있다.

광고대행사, 기업체 홍보실 및 디자인실, 방송사,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편집문화사 등 시각콘텐츠 및 문화예술을 다루는 곳이라면 어디든 취업할 수 있다.

한편 시각(視覺) 디자인은 3D를 활용한 디자인까지 매체(media)에 의해 전달된다. 매체는 포스터나 책 등에 사용되는 종이 혹은 영상에 사용되는 화면일 수도 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교육 과정과 맞춤형 실무교육만이 무한한 상상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디자이너 수요가 늘고 있다. 차별화된 디자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때이다.

반백년 향토술 지킨 조정형 명인

50여 년 동안 전복을 대표하는 '이강주'는 전라북도 문화유산이다. 이는 향토 술 '이강주'를 빚으며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는 조정형 명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강주(梨薑酒)는 조선시대 3대 명주의 하나로 전통 소주에 배와 생강이 들어간다 해서 이강주라 불리게 되었다. 향토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25도의 약소주이며 이강고(梨薑膏)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강주'는 조선 상류 사회에서 즐겨 마시던 고급 약소주인데 옛 문헌 곳곳에 자랑이 대단하다.

종래의 토종 누룩을 만들어 백미를 원료로 해서 약주를 만든 후 이 술로 토종 소주를 내린다.

여기에 배, 생강, 음금, 계피, 꿀을 넣어 장기간 숙성시킨다. 음금이 왕실에 진상품으로 올리던 전주 지방에서 재배된 것도 이강주가 전주에서 빚어질 수 있었던 이유다.

재료 가운데 배는 알카리성 식품으로 주성분은 탄수화물이다. 생강은 왕의 하사품으로 쓰일 만큼 귀한 약재였다. 울금은 술과 함께 섞으면 누렇게 금처럼 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1주일 된 술을 소주고리에 넣고 전통 방식으로 소주를 내리면 된다. 담근술을 다시 술에 넣고 불을 지피면서 냉각수를 교환해 준다. 찬기운과 만년 알료를 증기가 액화되어, 소주고리에서 높은 도수의 소주가 떨어진다.

조정형 명인은 "술은 제 일생이고 신앙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한다. 특히 "술이 익을 때는 자갈자갈 소리가 나오. 다 된 술은 오케스트라예요. 그 소리 들으면 익는 소리가 황홀합니다."라고 표현한다.

조정형 명인은 "우리나라 K-푸드라든가 K-문화를 외국 사람들이 최고로 쳐주기 때문에 그 덕으로 세계의 명주로 도약을 한번 해보는 게 꿈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화면 속 달라이 라마 보며 기도하는 대만 불교도들



대만 불교 신자들이 4일(현지시각) 인도 다람살라의 출라캉 사원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TV 화면을 통해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 대만 불교 단체의 요청으로 3일간 열렸던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가 이날 종료됐다.

단식 투쟁하는 베네수엘라 퇴직 노동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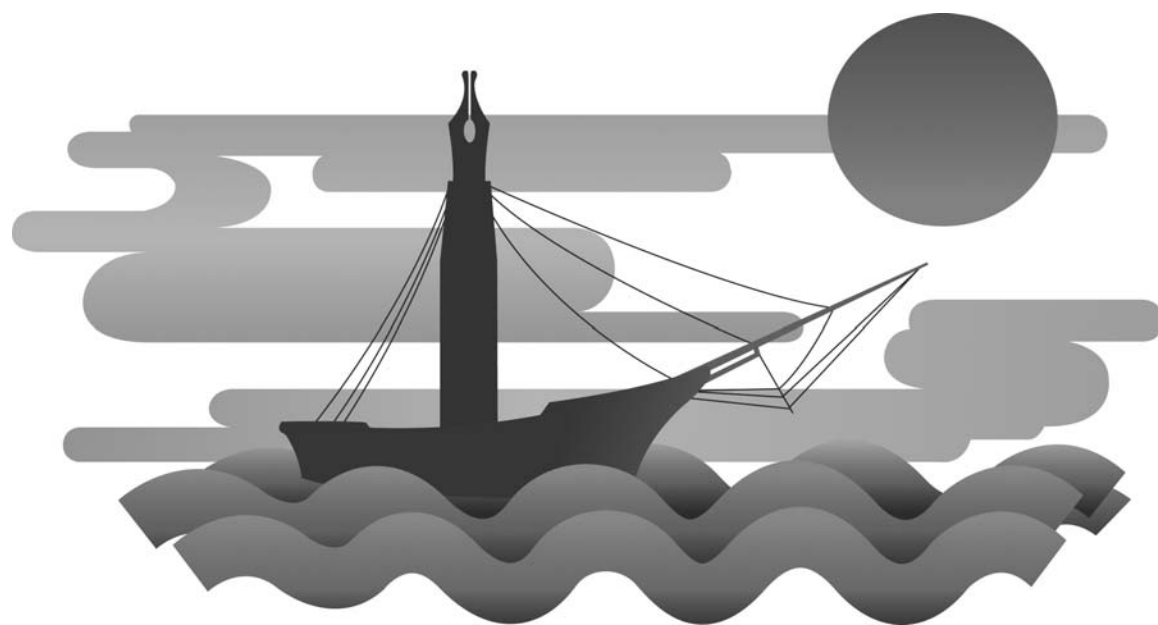
3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있는 베네수엘라중앙대학교(UCV)에서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의 퇴직 노동자들이 연금과 급여 지급을 요구하면서 일주일간의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